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순항

### 임실군, 1차 지급률 93% 달성하며 지급 마무리... 18일부터 2차 지급 돌입

임실군이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2차 지급 절차에 돌입한다.

군은 지난 4월 27일부터 시작된 1차 지급 결과, 5월 7일 기준 지급률 93%를 기록하며 총 19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접수 첫 주에만 대상자의 78% 이상이 신청을 완료하는 등 군민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이는 군이 요일제 제한 없이 읍·면 사무소 현장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군은 정부 지침에 따라 5월 8일로 1차 지급을 종료하고, 5월 9일부터 17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 이 기간 동안 군은 2차 지급을 위한 데이터 정비 등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 한부모 가족을 비롯해 소득 하위 70% 범위에 해당하는 군민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2차 지원은 1차 지급대



임실군이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2차 지급 절차에 돌입한다.

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이 시기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상품권 chak 앱)과 오프라인(읍·면사무소, 은행 영업점) 모두 가능하며,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소득 증명서류 등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1차와 마찬가지로 군은 고령

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유소나 면 단위 하나로마트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임실=진홍영 기자

# 황진 장군 재조명... 도로명 반영

### 남원시, '서부로' 도로명 '황진장군로'로 변경

남원시는 시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인 '서부로'의 도로명을 '황진장군로'로 변경하고, 도로표지판 교체 완료했다고 밝혔다.

황진장군로는 광치동 방자교차로에서 금지면 금곡교까지 약 18km 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10개 교차로를 통해 진입하는 남원의 주요 교통축이다.

이 도로명은 남원 출신의 역사적 인물인 황진 장군의 이름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황진 장군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무장으로 '해전에는 이순신, 육전에는 황진'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뛰어난 공훈을 남겼으나, 상대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낮아 지역 차원의 재조명이 필요한 인물로 평가된다.시는 해당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주소 사용이 없어 시민들의 주소 변경 불편이 없고, 이용 차량이 많아 대의 홍보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도로명 변경을 추진, 이와 함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소행정 분야에 △송흥록길 명예도로명 부여 △주소정보 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6년 국악의 본고장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송흥록 생가와 국악의 성지 일원을 잇는 2.2km 구간에 '송흥록길'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

명예도로명은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특히 관소리의 시조이자 가음으로 불리는 송흥록의 이름을 도로명에 반영해 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국악 문화와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매년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약 4만여 개 주소정보시설에 대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일제조사를 추진, 조사 결과 확인된 훼손·망실물은 7월부터 9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주소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쓰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상생이음 연대장터' 성황

### 기본소득 정책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특출

순창군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소비 확대와 공동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상생이음 연대장터'가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되면서 기본소득 정책의 지역 선순환 효과를 체감하는 현장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총 144억원이 지급됐다. 지급액 가운데 실제 사용액은 약 98억 6천만원으로 집계돼 68.3%의 사용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 내 소비와 창업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기본소득 등록 가맹점은 기존 1,520개소에서 1,759개소로 239개소 증가했으며, 이동마트와 정육점, 분식점, 차킨집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신규 업종이 면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38개소에서 현재 48개소 규모로 확대되며 생활서비스 실행조직이 결성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군은 지난 9일 풍산면 산물림센터 일원에서 '상생이음 연대장터'를 개최했다. 풍산면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이 주관한 장터에는 지역 농가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등 33개 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농특산물과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였다.

이번 장터는 주민들이 기본소득 카드를 활용해 지역 농가와 상점에서 직접 소비하고, 그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체와 지역 경제를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경제 모델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군, 집중안전 현장점검 실시

임실군은 지난 8일 임실군 성수면 소재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 현장을 방문하여 2026년 집중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6년 집중안전점검'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되며, 노후되었거나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고 조치함으로써 지역소방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방현숙 부군수를 단장으로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늘어나는 캠핑 이용객의 수요에 맞춰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면밀히 점검했다.

주요 내용은 화재감지기 설치 및 작동 여부 확인, 소화전 정상 작동 여부 및 상태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돼 보수, 보강, 사용 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수당재단, 순창지역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순창군은 (재)수당재단(이사장 김윤·삼양그룹 회장)이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3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총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순창고, 제일고, 동계고 등 지역 3개 고등학교 학생 30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됐으며, 장학증서 수여식은 5월 8일 각 학교에서 진행됐다.

장학생은 학교장 추천과 학업 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발됐으며,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수당재단은 삼양그룹 창업주인 수당 김연수 명예회장과 자녀들이 1968년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순창군에는 지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총 210명의 학생에게 약 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배우 박서준·정유미·최우식, 남원누리시민 등록

남원시는 지난 5월 10일 방영된 tvN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에서 배우 박서준, 정유미, 최우식이 '남원누리시민'으로 등록하면서 남원 관광의 새로운 모미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방송에서 세 배우는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관현루를 방문에 앞에서, 남원시가 운영 중인 생활인구 등록제도인 '남원누리시민'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했다.

특히 누리시민이 되면 관현루원 입장료가 무료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즉석에서 남원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 절차를 밟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3명의 배우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각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남원 누리시민으로 등록하고, 가입 완료와 동시에 발급된 남원누리시민증을 확인한 배우들은 '입장료 무료뿐만 아니라 맛

집, 숙박 할인 혜택이 이렇게나 많다'며 남원시의 파격적인 관광객 지원 정책에 깊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이들은 관현루원 입구에서 발급받은 남원누리시민증을 제시하고 당당히 '무료입장'에 성공, 남원의 정취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배우들의 유쾌한 반응은 방송 직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도 남원 누리시민에 가입하고 싶다"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조광희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순창군은 지난 8일 최영일 군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에 따라 조광희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 권한대행은 선거 기간 동안 군정 운영을 최소화하고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행정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재난·안전 관리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현안 점검과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광희 권한대행은 "군민 불편이 발

생하지 않도록 군정 운영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주요 현안들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공직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는 행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군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